

---

-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

#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



강 원 도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

# 보 고 순 서

---

I. 연수개요	/	1
II. 연수일정	/	2
III. 연수지역 현황	/	3
IV. 주요 연수 내용 및 결과	/	8
1 LA파머스 마켓	/	8
2 LA시내 및 시청	/	10
3 그랜드 캐년	/	11
4 캘리코 은광촌	/	13
5 샌프란시스코 문화·관광	/	14
6 레고랜드 캘리포니아	/	16
7 강원도 특산품 전문매장	/	18
V. 연수 종합의견 및 시사점	/	19

---

# 기획행정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 다양하게 급변하는 국제화시대를 맞아 해외 지방자치제도와 운영실태, 행정 및 문화시설 등을 비교시찰하여 폭넓은 견문과 전문지식을 함양,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 1. 연 수 개 요

- 연수기간 : 2015. 3. 25 ~ 4. 2 / 7박 9일
- 연수국가 : 미국
- 연수인원 : 12명 (기획행정위원 8, 전문위원실 직원 2)
  - 위원(8) : 최성현(부위원장), 김기홍, 구자열, 신영재, 오세봉, 임남규, 장세국, 최명서
  - 기획행정전문위원실(2) : 김수산, 김성한
- 주요 연수 및 활동내용
  -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도내 상품의 해외 진출 가능성 모색
  - 생태환경 보존·운영실태 및 문화재 관리 등 관광산업 벤치마킹
  - 은광촌 시찰을 통한 도내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 레고랜드 캘리포니아의 시설, 운영현황 등 벤치마킹
  - 연수국의 문화·행정·시책 등 일반 사항

## II. 연 수 일 정

월/일	연수지	교통편	시 간	세부일정	비 고
1일차 3/25	춘 천 인 천  캘리포니아	의회차량	10:00 13:00 15:00  10:00	춘천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출국수속 인천국제공항 출발 ----날짜 변경선 통과---- <b>LA 도착, LA 파머스 마켓 방문</b>	
2일차 3/26	캘리포니아 네바다	전용차량	09:00 11:00	<b>LA시청 방문</b> 라스베가스 이동(약 5시간 소요)	
3일차 3/27	캘리포니아 네바다	전용차량	전일	<b>그랜드캐년 견학</b>	
4일차 3/28	네바다 캘리포니아		09:00	프레즈노 이동(약 7시간 소요) <b>* 캘리코 은광촌 방문</b>	
5일차 3/29	캘리포니아	전용차량	09:00 14:00	샌프란시스코 이동(약 3시간) 샌프란시스코 문화 및 기반시설 등 시찰	
6일차 3/30	캘리포니아	전용차량	09:00	로스엔젤레스 이동(약7시간) <b>* 덴마크 민속촌 방문</b>	
7일차 3/31	캘리포니아		09:00 11:00 16:00	샌디에고 이동(약 2시간) 레고랜드 캘리포니아 방문 로스엔젤레스 이동(약 2시간)	
8일차 4/1	캘리포니아		09:00 12:40	<b>호텔 조식 후 공항 이동</b> 로스엔젤레스 출발 --- 날짜 변경선 통과 ---	
9일차 4/2	인천  춘천		17:25 18:30 21:00	인천국제공항 도착후 입국 수속 인천 공항 출발 춘천 도착	

### Ⅲ. 연수지역 현황

####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 □ 일반현황

- 국 명 :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美國)
- 위 치 : 북아메리카(서경 97° 00', 북위 38° 00')
- 면 적 : 9,826,675km<sup>2</sup>(대한민국의 98.5배)
- 수 도 : 워싱턴 D.C
- 인 구 : 319,416,300명(2014년)

- 기 후 : 지역별로 상이(열대사바나, 몬순, 서안해양성, 냉대습윤, 지중해성, 스텝, 사막, 고산)
- 종족구성 : 백인(79.96%), 흑인(12.85%), 아시아인(4.43%), 인디언 및 알래스카인(0.97%), 하와이 원주민(0.18%), 다민족(1.61%)
- 언 어 : 영어
- 종교 : 개신교(51.3%), 로마가톨릭교(23.9%), 모르몬교(1.7%), 기타 기독교(1.6%), 유대교(1.7%), 불교(0.7%), 이슬람교(0.6%), 기타(18.5%)
- 통화 : US 달러(USD, \$)
- 수출규모 : 14,970억\$(2011년)
- 수입규모 : 22,360억\$(2011년)
- 1인당GDP : 49,802\$(2012년)
- 정식명칭은 아메리카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본토와 알래스카·하와이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다. 남쪽으로 중앙아메리카의 꼭지를 이루는 멕시코와 국경을 마주하고, 북쪽으로 캐나다와 접해 있다. 서쪽으로 태평양, 동쪽으로 대서양에 접해 있고 남동쪽으로는 카리브해(海)가 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온대 주요부를 차지하며, 50개주(state)와 1개 수도구(district:컬럼비아구. 약칭 D.C) 외에 해외속령(海外屬領)으로 푸에르토리코·사모아 제도(諸島)·웨이크섬·괌섬이 있다. 캐롤라인 제도는 1947년부터 1986년까지 UN(United Nations:국제연합)의 신탁통치령으로 미국이 관할하였다.

- 세계에서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이며, 본토 면적만으로는 네번째이다. 인구는 약 3억 1천만명이 거주하며 다양한 민족이 이주하여 정착한 다민족국가로 세계에서 세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원주민은 아시아대륙에서 알래스카를 통해서 이주하여 정착한 인디언으로 추정되며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해 신대륙이 발견된 이후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미국은 유럽의 식민지로서 유럽강국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이때 유럽에서 전해온 전염병으로 많은 원주민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 미국은 영국인에 의해 지배되었다가 1775년에 시작된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여 독립된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 이후 동부에서 서부로 영토가 확장되었고 이 과정에서는 많은 인디언들이 정착지를 잃고 죽임을 당하거나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미국은 내분에 휩싸여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북부군이 승리하면서 진정한 통일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인구유입이 이루어졌고 산업화를 통해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스페인과 전쟁에서 승리하며 세력의 확장과 영향력을 넓혀나갔다.
  
- 20세기 들어 두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산업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세계 최강국으로 등장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구소련과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영향력은 유럽에도 미치게 되었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 우리나라와의 관계

- 미국은 한미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과 군사적, 경제적 파트너이며 한때 한국의 최대 교역국가였다. 최근 한국의 중국 및 유럽과의 교역량 확대로 교역량의 순위는 바뀌었으나 여전히 교역량은 많다. 1990년대까지 심한 대한 무역적자로 인한 통상 마찰이 있었으며, 미국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의 증가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무역수지가 역전되어 한국이 외환위기로 인하여 IMF 구제금융을 받은 1997년까지 최대 120억 달러에 육박하는 흑자를 보았으나, 1998년부터 다시 적자 상태에 놓여 있다.
- 미국은 이미 냉전 종식 이후 남북한 관계의 해빙에 따라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발표하면서 한국 내 전술핵을 철수하고 탈냉전에 따른 미군병력의 축소를 단행하고 있었지만,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군사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굳건하게 이어져왔다. 최근 한국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 정부의 정책이 대북한인식, 북한핵문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협력 확대와 더불어 경제적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007년 4월 2일 타결하였으며,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 한미 FTA 발효 1년 동안(2012.3.15~2013.2.28)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증대 효과를 시현하며 1.4% 증가하였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인 같은 기간 동안 2.3%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한미 FTA의 효과가 작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자동차부품(10.9%), 석유제품(29.3%) 등 한미 FTA 수혜품목의 수출은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혜 품목의 수출은 3.6% 감소하였다. 예를 들어 자동차부품의 경우 관세철폐, 현대·기아차의 현지생산 증가,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의 글로벌 소싱 확대에 따라 대미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 석유제품과 같은 경우 가격에 민감한 제품군이기 때문에 관세인하에 힘입어 한국산으로의 수입 대체수요로서 큰 증가를 보였다.

## □ 미국의 입법

- 미국의 헌법은 세계 최초의 성문헌법으로, 헌법 조안시 정치·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다. 비준 이후 최초로 수정된 10개 조항은 권리선언이라고 불린다. 이후 헌법은 27차례 수정되었고 1992년에 최후로 수정되었다.
- 헌법은 정부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양원(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포함하는 입법부, 대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부로 나누고 있으며, 견제와 균형을 기하는 제도를 통해 각부의 역할을 제약함으로써 각부의 권력 편중을 방지한다.
- 미국의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미국에서 유일하게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상원과 하원의 권한은 대등하며 법률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만 의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대체로 상원은 주 정부를 대표하고 하원은 주민을 대표하면서 항상 상대 의회를 견제하며, 상원은 3분의 2 찬성으로 모든 조약을 비준하고 연방 고위 공무원 및 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을 승인하며 하원은 세입 인상안, 연방 공무원 탄핵 소추권을

단독으로 행사한다. 양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법률로서 성립되며,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를 견제할 수 있지만 의회가 3분의 2 이상으로 재가결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거부하지 못한다.

- 상원의원의 정원은 100명으로 주의 크기에 관계없이 각주에서 2명씩 선출하며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3분의 1을 다시 뽑는다.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한다. 하원은 10년마다 행하는 인구조사에 기초하여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1명에서 53명(캘리포니아주)까지 선출하는데, 정원은 2006년 기준 435명이며 임기는 2년이고 하원의장은 호선(互選)한다

## IV. 주요 연수 내용 및 결과

### 1 | LA파머스 마켓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야외시장으로 1870년에 아서 프리몬트 길모어가 농장을 건설하면서 일대가 개발되기 시작하여, 경제대공황 이후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지역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져와 소비자에게 직접 팔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자는 제안으로 1934년 이후에는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하였다고 함.

- 현재 200개 이상의 소규모 상점과 100개 이상의 식당이 있고 세계 각처에서 온 향신료와 야채, 저장 식품 등 식료품을 살 수 있으며 소규모 상점에서는 잼과 초콜릿 등 직접 제작한 식품을 살 수 있어, 관광객뿐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시민도 많이 찾는 곳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음.
- 파머스 마켓의 성공사례를 볼 때, 강원도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토 음식 및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세대 및 개개인의 취향을 고려한 음식(커피, 빵 등)과 방문객들이 머물러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로 행사를 연중 개최하여, 방문객들이 장시간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LA파머스 마켓

- 한국의 거리 문화와 비교해 보기 위해 시청사를 중심으로 주변 일대를 시찰하였음. 시청사는 다운타운의 중심지인 시빅 센터에 자리잡고 있으며, 시빅 센터는 시청과 군청, 재무부 법무부 등 연방 행정기관 건물들이 집중되어 있어, 원스톱 행정업무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잘 세워놓은 것으로 판단됨.
- 도시의 주변을 돌아보는 중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시민의식 이였음. 차량의 크랙션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횡단보도나 정지선이 있을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이 미리 멈춰서 건널 수 있게 이끌었으며, 심지어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도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멈춰서 기다릴 줄 아는 높은 시민의식이 있었음. 또한 줄을 서거나 기다리는 도중에 아무리 줄이 길더라도 세치기 하거나, 먼저 가려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노약자나 여성이 있으면, 먼저 보내주는 양보와 배려의 시민의식이 눈에 띄었음.
- 그 중 보행자가 신호등의 버튼을 누르면 신호등이 잠시 후 파란불로 바뀌는 보행자 우선의 신호등 체계를 볼 수 있었으며, 이는 불필요한 보행자 신호를 없앴으로써 교통의 흐름을 돕는 결과를 가져왔음. 강원도에도 보행자가 없고 차량이 많은 곳에 채택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LA시청 및 시내

### 3 | 그랜드 캐년

- 그랜드캐년(Grand Canyon)은 미국 애리조나주 콜로라도 강이 콜로라도 고원을 가로질러 흐르는 곳에 형성된 대협곡으로 길이 447km, 너비 6~30km, 깊이는 1500m로 폭이 넓고 깊으며, 깎아지른 듯한 절벽, 다채로운 색상의 단층, 높이 솟은 바위산과 형형색색의 기암괴석, 콜로라도 강이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고 있음, 1919년 미국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미국의 국립공원 중 가장 규모가 크고 1979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록되었음.
- 그랜드캐년 중에서도 사우스림(South Rim)은 가장 교통이 편한 곳이자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전체 관광객의 90%이상이 이곳을 찾고 있었고, 사우스림의 절벽을 따라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어 협곡을 내려다 볼 수 있으며, 노새를 타거나 걸어서 협곡으로 내려가는 트레일 코스와 경비행기를 타고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관광도 가능함

- 그랜드캐년은 경관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학술적인 가치도 높은 곳으로 1500m에 이르는 협곡의 벽에는 시생대 이후 20억년 동안의 많은 지층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지질학 교과서'라고도 불린다고 함
- 또한 콜로라도 소나무를 비롯한 식물 1500여 종, 조류 300여 종, 줄무늬다람쥐를 비롯한 포유류 90여 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곳곳의 녹지대에는 수천 년 전부터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하바수파이족, 나바호족 등의 인디언 보호지구들이 있음
- 강원도에서는 그랜드캐년과 마찬가지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이동수단(ex 그랜드캐년의 경우 노새, 경비행기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 그랜드캐년내 시설물들은 주변 미관 및 환경 훼손 등을 고려하여 통나무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활용하였음. 강원도내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도 향후 이와 같은 시책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국립공원을 관광자원화(케이블카 설치 등) 하는 것도 필요함.



그랜드 캐년

- 미국 캘리포 은광촌은 미국 서부 바스토우에서 약 8마일 떨어진 곳으로, 19세기 서부개척시대에 대규모 은발굴의 “실버러시”로 인구가 급속도로 모여면서 발전하였으나 1896년경 갑작스런 은값의 하락으로 사람들이 떠나면서 “유령마을”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고 함.
- 이후 약 40년 넘게 사람 손길을 타지 못하다 1951년 월터 나트란 사람이 사들이며 자비로 민속촌 형태를 조성하였으며 이 지역을 구입할 당시 인구는 약10명으로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이른바 ‘유령마을’로 불렸다. 그는 이곳을 옛날 모습으로 복구하고 1966년 샌 버나디노 정부에 기증해 오늘날 관광지가 됐다고 함.
- 이곳을 살펴보면 미국 서부 개척시대 옛 모습과 폐광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수십 채의 옛집에서 각종 관광 상품을 팔고, 식당이 운영되며, 옛 광산을 도는 관광기차가 운행 중임. 매년 세계 각처에서 약 50만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음.
- 마을을 돌면 부서진 마차 한 대라도 모두 관광자원화 됨을 볼 수 있으며, 보잘 것 없는 마을이지만 집집마다 옛날에 쓰던 물건들을 진열해 놓고 있고 또 의미 있는 상품으로 판매함. 또한 ‘아웃 하우스’ 불리는 옛 화장실도 외관을 예전 그대로 보존되고 있고, 식당 종업원도 옛 복장을 하고 권총을 찬 모습으로 일을 하면서 사람들 눈길을 끌고 있음.

- 강원도에도 영월, 정선, 태백 등 폐광지역이 많이 있어, 이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대부분 박물관 형식을 빌려 주민생활과는 떨어져 있는 곳에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직접적인 수입과의 연계에는 한계가 있음.
- 켈리코 은광촌의 사례로 볼 때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형식이 아닌,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마을에서 체험을 병행한 사업을 시행하는 협동조합 방식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켈리코 은광촌

## 5 | 샌프란시스코

- 샌프란시스코는 태평양 연안 최대의 무역항으로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한 태평양 연안 제2의 도시이며, 또한 대륙횡단철도·파나마운하(運河)의 개통 등 유리한 조건이 거듭되면서, 식품·식육·섬유 등 각종 공업도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

- 1936~1937년에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 브리지와 골든게이트 브리지가 완성되어 인근지역과의 교통이 원활해졌으며, 현재는 대도시권의 심장부를 이루며, 서부 지역의 경제·상공업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옛날부터 교육·문화의 중심지를 이루었으며,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등 많은 대학과 연구소·문화시설이 많이 있었음. 또 차이나타운을 제외한 시가지 전체가 아름답고 조용하며,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는 것과 아울러 경승지·오락시설 등이 갖추어져서 수많은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음
- 샌프란시스코는 국제도시와 걸맞게 각종 관광시설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었으며, 예전 것을 관광상품화하여 도시의 미관과 잘 어우러지게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었음. 특히 관광지마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하여 시설의 유래, 에피소드 등 다양한 들을 거리를 각국의 언어로 제공하고 있었음.
- 강원도에서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발굴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오디오투어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샌프란시스코의 ‘비탈길 케이블카’처럼 각 관광지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개발이 필요함.



샌프란시스코 문화 및 기반시설

- 캘리포니아 레고랜드는 1999년에 개장하여 3~12세의 어린이와 그 가족을 위한 놀이와 교육을 겸한 시설로 설계·건설된 테마파크로, 완구제조회사로서는 전세계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유일한 유럽계 기업인 덴마크의 레고사가 운영하고 있었음.
- 레고사는 1968년 본사가 있는 덴마크의 빌룬트에서 처음 개장한 '레고랜드 빌룬트'를 비롯하여 1996년 영국 런던 교외에 개설한 '레고랜드 원저'와 이 '레고랜드 캘리포니아' 등 전세계 세 곳에서 레고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레고랜드 원저는 건전하고 수준높은 교육 효과를 인정받아 영국정부로부터 최고 훈장을 수상한 바 있음.
- 레고랜드 캘리포니아는 초록마을, 재미의 마을, 미니랜드, 상상의 나라 등 크고 작은 9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었음.
- 초록마을은 레고 블록으로 만든 동물원과 동화의 나라로 구성 되어 있었으며, 재미의 마을에는 3~13세 어린이가 두 개의 섹션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운전학교가 있었으며, 미니랜드에는 레고 블록으로 미국의 유명한 도시는 물론 세계의 명소들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는 등 볼거리와 체험공간을 동시에 구비하고 있어 입장객들의 대부분이 재방문 의사를 밝히며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었음.
- 또한, 레고랜드내 어린이 전용 물놀이 시설은 어린이와 부모 모두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많이 갖추고 있어 아이들을 동반한 많은 인파가 즐겨찾는 곳으로 각광받고 있었음.

- 괄목할 만한 점은 레고랜드 캘리포니아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씨월드”와 클러스터를 이루어 샌디에고 경기활성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주변 마을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 그 일례로 레고랜드 내에서 사용하는 음식재료는 지역제품을 사용하여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하였음. 음식과 식자재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만큼 최고로 신선한 것을 구입하여 청결하게 제조·판매토록 하는 영업방침 또한 인상 깊었음.
- 특히 세계에서 7번째이며 동아시아 최초로 2017년 상반기에 완공예정인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의 롤모델로 활용하여, 주변 관광지 남이섬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인파를 대비한 주차공간 확보,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숙박시설 등 종합테마파크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레고랜드 캘리포니아

## 7

## 강원도 특산품 전문매장

- 지난 2013년 LA에 문을 연 강원도 특산품 전문매장은 강원도내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었음.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감자떡, 코다리, 황태, 청국장, 찌뽕, 각종 젓갈류 등의 도내 전통시장 우수 상품을 청정 강원도라는 이미지와 어우러져, 한인들의 향수를 자극하면서 고객 확보에 성공했다고 분석됨.
- 그러나 보완해야 할 점은 앞으로 도내 전통시장 상품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인 2, 3세대와 미국 현지인을 공략하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과 아울러 제품의 다양화, 그리고 국제적인 상품 규격화 등의 과정이 필요함.
- 이와 함께 미국내 상설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뒷바침 마련을 비롯해, 현지 한인마트 및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판로 개척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강원도 특산품 전문매장

## V. 연수 종합의견 및 시사점

<p>LA파머스 마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세대 및 개개인의 취향을 고려한 음식(커피, 빵)과 방문객들이 머물러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연중 개최하여, 장시간 머물 수 있는 조건 조성 필요</li> </ul>
<p>LA시내 및 시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청사 이전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행정기관의 밀집 필요</li> <li>• 도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보행자 우선의 신호체계 조성 필요(버튼식 신호등)</li> </ul>
<p>그랜드 캐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도립)공원 내 시설물 건축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자연환경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건축 필요</li> <li>•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여 줄 수 있는 다양한 이동수단을 마련하여, 이용객의 편의성 증대 및 관광자원화</li> </ul>
<p>캘리포 은광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과 유사한 사업 추진시 박물관 형식이 아닌 체험 위주시설과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마을단위 사업(협동조합) 추진 필요</li> </ul>
<p>샌프란 시스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늘어나고 있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해 오디오 투어시스템을 도입 필요</li> </ul>
<p>레고랜드 캘리포니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준공예정인 춘천 레고랜드코리아의 성공을 위해 주차장, 숙박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를 수요에 맞춰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li> <li>• 인근 지자체와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공동사업 필요</li> </ul>
<p>LA 강원도 특산물 전문매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도 특산품의 판매 증대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해외 전문매장 판로 개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대책 마련 필요</li> </ul>